

南窓隨筆

東天紅

나는 거슬은이世上에 나면서刹那도 머무르지 안코 生活曲線에 광대. 줄라는 貌樣으로 올라서 서운지가 벌써二十四個星霜동안이다. 요말을 한몸에 東嶺으로 솟아 西山에 지는 저-太陽은 선색 치듯 年光을 더럽々々 처먹기고 扶桑에서서 成池에 들어가는 저-明月은 賣笑婦의 粉白으로 老像의 빛을 치역々々 칠하여준다. 덕군이나 永生의 希望과 不死의 理想의 좋은 맹남스럼겨 나의 마음을 갈가먹는다. 時計추가 움직이니 歲月은 가느냐. 헤가지고 밤이 되니 人生은 허느냐. 어제 잊든 青春이 오날 업스니 사람은 죽느냐. 太陽은 黑點關係로 冷却하여간다. 處女의 빨간마음은 變하여간다. 白衣同胞는 北間島로간다. 世界大衆은 죽임의 무덤으로간다. 人生은 草露다. 世上은 無常하다. 淸淨한 伽藍에서 法師가 綠羅衣上에 紅袈裟를 수하고 獅子榻上에 올라서 廣長舌로 說法을 하다가 慈悲眼을 스투스 감고 住杖子를 집으며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偈頌을 구슬뜨게 읊을새 想像하면 生은 그價値가 서문싸리 못되고 死는 누어서 역의 기보다 쉬운 못하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地球表面에 居住하는 五色의 人類야. 秋風이 白露을 날리고, 草木이 黃落할際 有主無主 哀魂佛子가 列席한 靈壇앞에서 施食하는 沙門이 振鈴하고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라는 偈頌 읊는 소래를 듣는 감고 至心諦聽하라. 이 偈頌問題에 答案을 쓸者 千구이나. 이물음에는 雄辯家 政治家 文學家 藝術家 英雄 豪傑 將軍 武士 들이모다 白旗를 揭揚할 것이다. 蟬蟬갓흔 人生이 한 번 죽어지면 黃泉에 흠이 되고 北邙山下에 煙氣로 化한다. 極樂世界 紫金蓮臺에 誕生한 사람은 반드시 人間에 入되오를 放送할 것만은 娑婆空中線에 應된 일이 업스니 KRSK(極樂世界) 放送局의 電

氣原動力이 不足한 인간가. 極樂과 娑婆의 距離가 十萬億國土나 되어서 電波가 中間에서 송어지는 까닭인가. 地獄이 있다면 사람죽음을 쌍팔이 먹은능 거진 말한능들을 모다 逮捕해서 閻羅王과 十大判官의 公正한 判決이 잇슬연만 判決言渡는 傍聽한者 업스니 千金不死와 百金不刑의 法則을 適用한 인간가 南方化主 大願本尊 地藏菩薩을 成佛케한 인간가. 大體 曉露갓흔 人生이 죽으면 어데로가는가. 금박죽은사 랫귀에 大砲를 노아도 聽而不聞하는 데그총장귀 에다 어데로가는냐고 알만되푸리해 부르지정자 아모 効果가 업슬 것이다.

이宇宙에 잇는 全人類는 臘月晦日이 되면 涅槃 鐘이 멍-멍 울린다. 이 鐘이 울니는 날에는 娑婆界

를 告別하는 날이다. 聖人類야 火宅의 熾盛하는 火焰을 法雨로 澆消 防手는 우리이며 苦海의 거슬은 波濤를 法船으로 航海할船夫는 우리이다. 生死境界을 解脫해서 涅槃彼岸에 到達하자. 뜨거운 하늘빛해 靑山幽谷에서 孤獨하게 不合 理를 부르짖는 北國鳥의 울음은 空然히 고요한字 宙에 잠자는 音波를 출렁거린다. 自然의 女神이 연 두밧으로 공계꽃을인 저-그늘속에서 淒涼하게 無常을 웨치는 無名禽의 獨唱은 이내가심的心臟 의 뛰는 鼓動과 合唱될새이다. [完]

二九五五・八・四日 興國寺 檀香室南窓에서

農村에 잇는 小弟의 歌

化竹

小弟야! 蕭瑟한 金風이 階前에 梧葉을 울니고 물포 기마다 정々한 별레 소리요 란하니 가을기운이 完全이 도모이는구나! 하늘이 새파라케 깨끗이 날하졌고 蘆

花가 하얗케 愁心에 브치울때 괴력이 盈이 울며 月色을 차고가니 가을情景이 哀愁로 가득하다. 綠陰이 지러 진芳草에 이슬이 맺치고 野外에 禾穀은 錦波가 萬頃으

로는 실그린다!

小弟야! 오랫동안 맥헛든消息을 이제사通하려한다
 내가 가장敬愛하는小弟의제4年이란기! 동안을
 글할한쓰고보내지못한내야말로無情라는것보다果然
 無心한것이다。時間의餘裕을잊지못해서쓰지못했다
 는것은全然이거짓말이다。다만나의그동안生活道程
 에波瀾이萬丈하였고 雲霧가자욱한險路道程에서로
 장헛든까닭이다。小弟야! 멀리잇서々다만넋남사탕
 하몬그純眞한情만있고그리고잇는나의제야나의그동
 안渡世의內容을모르고잇섯는이악이불이제이르러났
 々쓴들내가有意는하였는때事情이不許하였다는辨明
 에지내지못하고마는것이안넌가? 그러기때문에내가
 너의개인情업고無心하였다는것이너의對對한率直한
 謝告가될만한데다라서恕諒도求하여지는것인줄안다
 ! 小弟야! 내가一昨年그어느뎡가? 風浪에남나椰子
 樹피는따뜻한南嶺나라를중지고 傘고교바람찬北嶺
 나라의孤客을지였을때에 내가普通學校를卒業하고
 十里를뜻나가본너로서어느사이에大地를주렁잡고하
 날을뜻뜻이泰山장차偉大한男兒의가슴에서躊躇없이
 소사나온大丈夫의勇氣로서눈물겨운長奮을나의제보
 년일이이섯지? 그결算中에가장내가意外로늘넌것은

「사랑하는兄님이시여! 저는언제까지나어머니정착

지에매여달녀린어린이와같이情에만살수없음이다理智
 로써우는世上에서저도理智를길너야하며따라서理智
 위에서살아야하겠음이다할수없이情을누르고意를세
 워야할世上이니가저는故鄉도버리고父母도여이고맨
 주먹이나마힘있게되고兄이늘든서울이아니면玄海灘
 을건너東京으로가리다」라는말에나는읽든말말을中
 斷하고그말을었다小弟야! 내가너아다습히어릴때부
 러異域生活에는무언이도저준물이다마는눈물방울을
 떠러로리면서슬어보기는내말말을맞든그때가나의生
 後에서음이였다그러면그을엇든理由에는여러가지였
 든것이다그몇가지를말한다면첫재에는내가天眞스런
 계王國에살든그때에내암해서하늘「天」다! 「地」를배
 우든내가아니냐。正月이오고보름이오면고사리жат은
 손으로「연」날니든내가아니냐。또는입에젖내나는내
 몸을꺼안고북대장은내손을내가깃쥐고一二三四字를
 그리든내가이러케도括目相對하게된때서슬었고, 물
 재에는小弟야! 걱정이갖지도말이든나의筆跡이이제
 는이러케도입부재오목조목하게아당스럼고얇전하게
 된것을보너의그「고사리」같은손을들맹이갖치곳이
 저고배(梨)——스속장차單純하든내머리는벌충(蜂巢)

「가치複雜해서너도이제는우는人生이되얏고나」하
 는嘆息에서을엇든것이다! 小弟야! 勿論그렇듯根據
 가없고後援이없는내處地임에도不拘하고엇든배우
 기爲하야알기爲하야都會를꿈꾸고海外雄飛를夢想이
 라도해보는것이야말로사나이의말이고勇氣잇는男兒
 의노릇이다만은環境이不許하고處지가容納없는데야
 그일을엇지하나?

너도味情한내가아니거든엇지내말이글라고하라? 小
 弟야! 「農村」으로가거라將來의世上은農民의것이다」
 또는「都市文明으로農村文明에!」 「都市生活로農
 村生活에!」 하고되든것이다都市를咀呪하는同時에
 農村을憧憬하는것即一步를進한者들의말인줄너도알
 겠지?

小弟야! 不合理하고不公平餘地없는우리社會에
 서쫓겨나와올고잇는동모가다만너한사람에갓치고말
 겠나! 모든동모가다그러하고朝鮮青年이다그러하다
 小弟야내가이러케말하면너의勇志를防止하고너의抱
 負를消滅시킨다할는지모르나 그러나決코그런것이
 아니라너를爲한眞情의一端이다小弟야地上에서가장
 마음노고살곳은나를안아준故鄉이다世界人類中에서
 가장情다움고힘잇고반가운사람은故鄉사람이다小弟
 야우리人間이一平生을故鄉의물을먹고兩親을성기며
 兄弟姉妹와가치한故鄉에서지내게된다면人生은이우
 에더幸福을求하지안을것이다그러나너의一身보다도
 너의老親, 너의家族, 너구나너의기름내, 살내나는
 땅을爲하야이런말을아니할수없다 너의兄弟를爲하
 야너의隣里를親戚을爲하야이런말을아니할수잇나!

小弟야! 또는人生은大自然的의雄偉深大한教訓을받
 지아니하면그야말로時俗末流의無價兒가되고마는줄
 너도알려이지? 그러면너는只今大自然大學에서豐
 富한教材를對象하고偉大한教授를맞고잇지안나? 네

祈雨文

佛頭花

야말로幸福者이다 그야말로無師獨悟者이다! 正말 부럽게도하구나! 天空海淵과山高水長이 人生의大教材이오鳥啼花笑와犬吠雞鳴이亦是그것일뿐! 南田北畝에麥黃稻青이一々이모도가教材이고學科가아닌가? 이것호豐富한教材、學科로부러大度量、大智識도 여기서엇고大經驗大勇躍도여기서엇는것이다!

小弟야또大自然景의滋味가그얼마나마는가? 靑山綠林間에소(牛)의뿔고나뿔나는플넙사이르나뿔뿔서笛불고거리가는맛이엇더하며 白鷺가조울고잇는

蒼波白沙우으로自由放歌하면서맛매고도타오는맛이또한엇더한가? 小弟야넛々例를들면眞味가가득한고개가數없이만라만은趣味眞々한樂境이라말이너머길어질가그만편을던지려고한다小弟야또호호또한番付托은이것이决코너를慰留하는말이아니라眞情으로美望하는바이다! 小弟야! 나의敬愛하는小弟너는一片此書를뜻잇게읽어달나는것이다小弟야健康하여라.

戊辰九月廿五日 漢陽 張繼 謹誌

(此間七行削除)

丁卯年을 눈물겨움게送하고 戊辰歲를 반가움게迎하자 靑帝의君臨으로 自然의女神이 紅花로 春城을 香계裝飾하고 芳草로乾坤을 어엿부게우미은씨가 아직도 눈에薰微한데 어느덧 赤帝가 天下를號令함에 日光이뜨거우이여 江乾河燥하고 月色이붉음이여 草枯蓬凋로다. 十有餘年동안 旣

속에 파뭇치잇든매암이의 樹顛鳴聲은 旱魃을絶되하고 警報의責任가진雨兒는 七龍의消息을 報하지아는지가 임의오래니 是何事耶아.

傷心哉라 五風十雨는 이聖世泰平의象徴이언만 三夏가벌서過去하여도 甘雨는不下하고 다만靑天에黑雲이徘徊하고 空間에狂風이往來할뿐이니 半萬年の芳史를가진 우리朝鮮은 五濁의惡世耶아.

三災의世相耶아.

五日不雨則無麥이오 十日不雨則無禾는 喜雨亭記에所謂어늘 數月不雨하니 無麥無禾는 自然的必然의事實이라 麥禾가無하면 大衆은 將且 잇되게生活하라는가. 使天而雨珠라도 寒者는 不得以爲糯요 使天而雨玉이라도 飢者는 不得以爲粟이라하니 此는必히 使天而雨々라야 飢寒者! 得以爲粟糯이리니 至今에는 晚時之歎이 不無하니 萬一에 時刻을遲滯하면 設令 使天而雨々라도 成服後에藥方文格이지 何等의效果가無할것이다. 緊急救濟策은 使天而雨衣雨食이라야하리니 此는根本的絶對的不可能의事實이여니 大衆은또한 엇더한方策을 取하라는가.

나 이것이 아인스라인相對性原理인가 娑婆의特色인가.

嗚呼라 時運이不齊하고 命途가多舛이라. 堯舜은帝位를 禪讓하는데 我田引水戰에 쇠스랑으로 殺人하며 阿房宮도 楚人一炬에 焦土로化하였지만 씨가노라스케 라죽었다고 논에放火하며

(此間十三行削除)

嗟乎라 一人之心은 千萬人之心이니 蒼々蒸民은 父母 兄弟 天婦 할것업시 다가지 손에손을마조잡고 뜻에뜻을서로合하여 一心精力으로 祈雨합시다. (次)

二九五五.八.二七日 漢美山下 爐香室雨賦에서記

넛적 春香의十枝은 平壤監司의秋霜의威風이어늘 戊辰의七龍은 笞刑處罰하는者無하며 唐나라 韓刺史가 天子大命을拜受하여 鱈魚를 七日之間에 驅逐하였건만 朝鮮에는七龍을號令할者가無하니 大自然을支配치못하는所以이다.

戊辰夏에 大旱魃은 醴泉宮에祈晴祭지내든 嘉祐元年大雨水와 漢江과洛東江沿岸에서 鱈浪鯨波가多數의生靈을삼키는 乙丑年大洪水를 聯想케하

